

## 비행경력과정에서 나타난 부모의 폭력적 훈육 효과: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최 수 형\*

### 국문요약

이 연구는 청소년 지위상의 비행에 해당하는 경비행을 시작으로 보다 심각한 중비행을 저지르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폭력적 훈육의 효과가 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의 2, 3, 4차년도 자료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여자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과는 달리 경비행으로 인한 부모의 폭력적 훈육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 내의 여자아이에 대한 엄격한 규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청소년은 사소한 비행일지라도 심각한 행동으로 간주되어 부모의 지나친 처벌이 행해진 결과이다. 특히, 여자청소년의 경우 과거 경비행경력만으로 이후 중비행경력으로 강화될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모의 폭력적 훈육을 매개로 하였을 때 그 가능성이 나타나 강화된 비행경력에 있어서 부모의 적절한 훈육방식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강화된 비행경력의 지속과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모의 폭력적 훈육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오늘날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경력 비행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재구성한 것이다.

\* 고려대학교 사회학박사

## I. 서론

최근에 발표된 청소년범죄에 관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범죄인 중에서 과거 범죄경력이 있는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범죄백서, 2006). 이러한 통계적 수치는 이미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 중 법적 처벌경험을 기준으로 살펴본 것으로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적발되지 않은 청소년과 술 마시기와 담배피우기, 무단결석, 가출과 같은 청소년 지위상의 비행까지 고려한다면 전체 비행율에서 경력 비행자(career delinquent)의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청소년 시기의 비행경력은 성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Bernburg & Krohn, 2003; Sampson & Laub, 2004; 김준호 · 이순래, 1995; 이순래 · 박철현, 1999; 김은경 · 이동원, 2003; 이순래, 2005). 이처럼 국내의 청소년비행 발생건수의 상당부분이 과거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고 청소년의 비행경력문제가 청소년 시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경력 비행청소년 가운데 처음부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드물다. 청소년 시기동안 담배 피우거나 술 마시기 등과 같은 청소년 지위상의 비행을 한두 번 저지르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비행유형과 비행횟수에 있어서 그 심각성을 지니게 된다(Wolfgang et al., 1987; Thornberry, 1987). 그렇다면 사소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은 왜 비행을 그만두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비행을 저지르게 되어 점차 심각한 비행으로 발전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청소년비행연구에서 가정과 비행간 관계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특히,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부모의 훈육방식 가운데 비행에 있어서 부모의 처벌의 중요성이 주장되었다(Loeber & Stouthamer-Loeber, 1986; Smith & Sten, 1997; 김준호 · 김선애, 1996; 이성식, 2003 재인용). 즉,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력적인 훈육이 자녀의 행동통제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비행을 저지르도록 하는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 부모의 폭력적 훈육방식과 비행 간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비행경력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단

순히 비행개입의 가능성만을 살펴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과 비행을 저지르지 않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부모의 폭력적 훈육 정도가 다르고 부모의 폭력적 훈육의 효과는 이미 비행을 저지른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과거 비행경력이 없는 청소년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부모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신체적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고 이러한 경험으로 인하여 또 다시 비행을 저지르기 쉽다. 특히, 여자청소년 비행의 경우 남자청소년에 비해 부모에 의한 폭력의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Widom, 1989; Sansbury & Wahler, 1992; Artz, 1998; Chesney-Lind, 2004b; 정익중, 2004). 이는 성역할사회화의 결과이다. 여자청소년에게 비행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지르지 말아야 할 행위인 동시에 여성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태도와 행동양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중적인 비난이 가해져 과도한 제재와 통제를 받는다. 즉,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아이이기 때문에 사소한 비행일지라도 심각한 행동으로 간주되어 부모에 의해 지나친 처벌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여자청소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회적 경험을 중요시하도록 사회화되어 가족 내에서의 경험 특히 부모로부터의 폭언과 신체적 폭력의 경험은 비행에 있어서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비행연구분야에서 성별 차이에 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비행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논의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청소년 지위상의 비행에 해당하는 경비행을 시작으로 보다 심각한 중비행을 저지르는 비행경력과정에서 나타난 부모의 폭력적 훈육의 효과가 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 1. 비행경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

비행경력(Delinquent career)이란 연속적으로 저지른 비행의 추이를 의

미하는 용어이다. 본래 경력(career)란 직업체계에서 개인의 연속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행경력(飛越 경력)은 개인이 어떠한 비행과정을 거치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유용한 개념이다(Becker, 1973; 노성호, 1993 재인용). 비행 및 범죄경력에 대한 연구는 울프강(Wolfgang, 1972)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이론화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상반된 두 가지의 입장으로 구분된다. 어릴 적 형성되어 결정된 개인적인 비행성향은 불변하는 것으로 비행성향이 강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비행과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는 ‘모집단 이질론(Population heterogeneity)’적 입장의 논의와 비행을 저지른 후 경험하는 상황의 변화에 주목하여 비행의 지속은 개인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는 ‘상황 의존론(State dependence)’<sup>1)</sup>적 입장의 논의가 그것이다(Nagin & Paternoster, 1991).

모집단 이질론적 관점의 대표적인 이론은 간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 1990)의 ‘일반이론(General theory)’이다. 일반이론은 비행의 유일한 원인이 ‘자기통제력(self-control)’이라고 보고 어릴 적 형성된 자기 통제력은 평생 지속되는 것으로 낮은 자기 통제력을 가진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며 성인이 되어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행경력(飛越 경력)의 지속에 대한 모집단 이질론적 접근의 논의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모집단 이질론적 입장의 논의는 어릴 적 형성된 개인의 성향이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은 만성적으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주장으로 비행의 지속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환원시키고 있다. 둘째, 이러한 주장은 문제적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을 만들고 그들의 비행경력(飛越 경력)의 지속여부와는 상관없이 사회적 통제와 제재, 감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모집단 이질론적 접근의 논의에서 개인의 문제 성향을 결정짓는 어릴 적 부모로부터의 양육경험은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즉,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부모,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전부였던 상황에서 벗어나 또래 집단과 학교선생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여 다양한 사회

1) 원래 상황이란 용어는 ‘situation’으로 범죄기회이론(생활양식이론 등)이 상황이론으로 불리어지기도 하지만 여기에서의 ‘state’는 모집이질론에서 강조하는 ‘개인의 성향’과 구분하기 위해 ‘상황’으로 번역하여 ‘외부 환경적 상태’라는 뜻을 담고 있다.

적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집단 이질적론 입장은 비행의 지속현상에 대해 제한적인 설명력을 지닐 수밖에 없다.

한편, 비행의 지속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 영향력을 강조한 상황 의존론적 접근은 모집단 이질론적 접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행경력 지속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비행경력과정에서 상황 의존론과 모집단 이질론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해 본 결과, 비행의 지속현상에 있어서 모집단 차별성의 영향력보다는 비행으로 인한 상황변화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 상황 의존론이 경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Nagin & Paternoster, 1991; Simons & Johnson & Conger & Elder, 1998; O'Connell, 2003; 김준호 · 이순래, 1995; 김은경 · 이동원, 2003;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이성식, 2007; 이순래, 2007; 노성호, 2007)<sup>2)</sup>. 상황 의존론은 1991년에 들어 명명되어 비행경력 지속에 있어서 상황적 요인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범죄사회학의 이론적 변수를 비행시작의 원인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비행의 결과이면서 비행경력 지속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상황 의존론적 입장은 비행과 주변 환경적 요인간의 양방향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행경력 지속연구에 대한 상황 의존론적 논의의 기본적 입장은 비행 및 범죄를 이해함에 있어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범죄사회학적 입장과 동일하지만 비행의 원인으로 상황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행의 결과로써 상황적 요인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청소년비행연구의 새로운 시도이다. 이러한 시각의 논의가 풍부해지기 위해서는 비행경력 지속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비행유형을 고려하여 비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상황적 요인과 이후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성역할사회화로 인하여 비행자의 성별에 따라 경험하는 상황적 요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행의 지속과정에서 나타나는 남·여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2) 반면 Nagin과 Farrington(1992)에서는 모집단이질성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상황 의존론에 대한 검증방식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 2. 비행과 부모의 폭력적 훈육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훈육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비행청소년을 둔 부모는 자녀에 대한 관심표현, 설득, 칭찬보다는 화를 더 많이 내고 체벌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ansbury & Wahler, 1992; 김준호 외, 2006). 일반적으로 가정 내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은 타인에게 자신이 경험한 폭력을 그대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폭력의 피해자가 또 다른 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부모의 부적절한 훈육방법은 자녀의 비행 및 범죄에 대한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력적인 훈육은 청소년기의 비행에서 성인기의 범죄로의 전이과정에서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Stouthamer-Loeber et al., 2004). 이처럼 비행경력 지속현상과 부모의 폭력적 훈육은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스트라우스(Straus, 1991)에 의하면 가정 내 체벌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비행의 억제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비행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한다(노성호, 2006a). 이처럼 부모의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언어적 폭력(심한 비난, 욕설 등)은 부모와 자녀간의 불안한 관계를 형성시키고 청소년에게 긴장을 유발하여 비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이성식, 2003). 또한 부모의 폭력적 처벌과 비행과의 관계는 차등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의 맥락에서도 설명가능하다.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등적 접촉이론은 청소년이 주변사람들로부터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학습하게 되면서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본다. 즉, 부모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나 친한 친구가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접할 경우 그 아이들은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훈육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부모의 폭력을 자녀가 그대로 학습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 폭력적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Patterson, 1982). 다시 말해서 부모의 부적절한 처벌과 때, 폭언은 잘못된 학습과정으로 그 자체가 공격적 행동의 본보기로 비행에 대한 긍정적인 훈육효과를 가지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자녀의 비행을 부추기는 원인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비행으로 인하여 가정 내 신체적·언어적 폭력의 경험은 비행경력을 지속함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임을 짐작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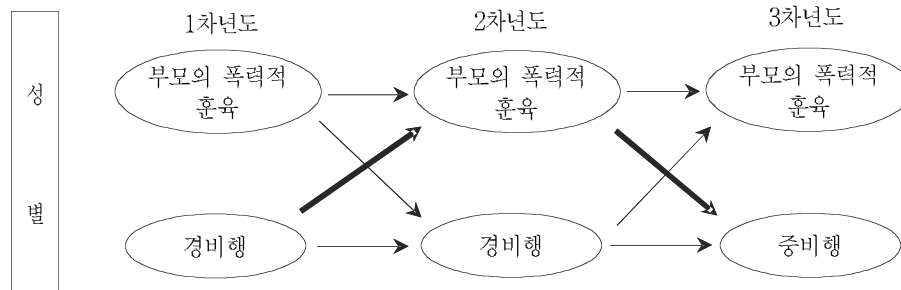
### III.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방법

####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비행경험으로 인한 부모의 폭력적 훈육경험과 이후 보다 심각한 비행경력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에 주목한다. 우리 사회는 같은 집단 내에서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서로 다른 지위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태도와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비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남자아이니까, 여자아이니까 라는 식으로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비행에 대한 의미가 다르다(Leonard, 1982; Heimer & Kruttschnitt, 2006 재인용).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성역할이 있다(Heidenshon, 1968; Oakey, 1972; Adler, 1975; Simon, 1975; 최수형·김준호, 2005 재인용).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시기동안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특히 비행자가 여자아이일 경우 비행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인식된다. 즉, 여자청소년의 비행은 청소년으로서 금지된 행위일 뿐 아니라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태도와 행위를 어긴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일한 비행이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제재와 처벌이 다를 수 있다. 가정 내에서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에 비해 옷차림이나 늦지 않도록 하는 귀가시간 등의 부모의 엄격한 통제장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아이의 비행은 청소년에게 금지된 행위를 했다는 점과 여자아이로써 부모의 기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동시에 지적되면서 동일한 유형을 비행을 저지른 남자아이보다 상대적으로 부모의 과도한 처벌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여성들은 타자와 밀접하고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사회화되는 반면에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좀 더 독립적이고 타자와의 감정적인 유대를 덜 맺도록 고무되는 경향이 있다(Bardwick & Douran, 1972; 김준호·김은경, 1995 재인용). 즉, 전통적 성역할 사회화로 인하여 남성과는 달리 여성과 관계적 차원의 요인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남·여의 이러한 차이는 여자비행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상황적

인 요인 중에서도 여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준거집단인 가족 내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하게 한다. 즉, 여자청소년에게 있어서 부모의 폭언과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부모와의 관계의 단절은 가족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도록 하여 비행を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주변 사람과의 관계 단절과 신체적 폭력 등의 경험 특히, 가족 내의 경험은 여성들로 하여금 비행 및 범죄행위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이춘화·윤옥경, 2003). 실제로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에 비해 상황적인 요인 중에서도 여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준거집단인 가족 내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Comack, 1996; Ferraro, 1997; Johnson et al., 1998; Jutik & Winn, 1990; Moe, 2004 재인용; Chesney-Lind & Shelden, 2004c). 또한 소년사법체계에 진입하게 되는 여자청소년의 경우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과 같은 경험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Koroki & Chesney-Lind, 1985; Chesney-Lind & Shelden, 2004c 재인용).



<그림 1> 연구 모형

이처럼 남녀에 따른 차별적 사회화로 인하여 여성에게는 여성다움을 남성에게는 남성다움을 강조하여 남자청소년의 비행은 허용정도가 높고 여자청소년들의 비행경험은 그러하지 못하여 비행경험 이후 부모의 폭력적 훈육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여성에게는 사회적 관계 특히 가족구성원간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비행으로 인한 부모의 폭력적 훈육경험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끊어져버릴 수 있는 요

인으로 또 다시 비행을 저지르게 할 유발요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여자비행청소년은 남자비행청소년에 비해 사소한 비행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폭력적 훈육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험으로 인하여 보다 심각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안된 연구모형은 앞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은 교차지체 패널모형(Cross-lagged panel model)으로 구성된 구조모델이다. 이 연구모형에 의하면 경비행이 독립변인으로 부모의 폭력적 훈육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와 경비행으로 인한 부모의 폭력적 훈육이 독립변인으로 이후 중비행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즉, 경비행을 저지른 후 부모의 폭력적 훈육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중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로를 중심으로 제안된 것이다. 이처럼 이 구조모델은 경비행에서 중비행으로의 강화된 비행경력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폭력적 훈육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동시에  $t$ 년도 비행과  $t+1$ 년도 비행 간의 관계,  $t$ 년도 부모의 폭력적 훈육과  $t+1$ 년도 부모의 폭력적 훈육간의 관계도 살펴볼 수 있다.

## 2. 연구방법

### 가. 연구자료

이 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이후 KYPS)<sup>3)</sup>의 2, 3, 4차년도 자료를 통해 이루어진다. KYPS의 조사방식은 청소년들의 경우 1차

3) KYPS는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의 방식으로 2003년 4월 1일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난 제주도를 제외한 12개 특별시, 광역시, 도별로 중학교 2학년 학생 수에 비례하여 지역별 목표 표본 수를 할당한다. 학교 수는 12개 특별시, 광역시, 도별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학교추출은 학교별 중학교 2학년 학생 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PPS) 적용하여 추출된 학교의 중학교 2학년 학급 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 무작위 추출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표본이 상실될 경우, 표본을 대체하지 않고 횡단적·종단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한다. 2006년도에 실시한 4차 조사가 완료된 현재 표집 유지율이 90.5%로 학생을 기준으로 3,121명의 자료가 수집되어 성공적인 표본유지율을 보여주고 있다(김기현·임희진, 2007).

년도에는 학교방문을 통한 집단면접조사로 시작하였으나 2차년도 조사부터는 면접원과 학생과의 개별적 조사로 시행하여 조사방식의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경우 1차년도와 2,3,4차년도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자료수집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해석할 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sup>4)</sup>. 특히 비행과 같은 민감한 질문의 응답은 조사방식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동일한 조사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한 2,3,4차년도의 자료만을 사용한다<sup>5)</sup>. 이 연구에서는 패널자료의 1차년도 자료를 제외하고 2,3,4차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여 2차년도에 실제 본 분석의 1차년도에 된다.

#### 나. 주요 변인의 측정

이 연구의 주요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폭력적 훈육을 측정하기 위해서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의 두 문항을 사용한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구성된다. 즉, 이 연구에서 부모의 폭력적 훈육은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폭력적 훈육경험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비행경험은 “지난 1년 동안 몇 번이나 해보았느냐”의 응답으로 측정되며<sup>6)</sup> 비행죄질에 따라 경비행과 중비행으로 구분한다.

4) 집단면접조사는 집단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즉, 집단면접조사는 질문지 응답 시 한사람의 발언이 전체에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거나 옆 사람의 의견을 자문하여 본래 조사의 의도가 오염될 염려가 있다(김응렬, 2001). 한편, 개별면접조사는 조사원의 의견이나 유도질문으로 인해 피조사자의 응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김응렬, 2001).

5) 물론 비행경력에 지속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1차년도의 비행여부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패널조사의 1차년도라 할지라도 중 2때부터 시작된 조사이기에 그 이전의 과거비행경험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6) 청소년패널조사에서 비행경험 횟수에 대한 문항은 ‘지난 1년 간 본인이 한 횟수’를 직접 기입하도록 되어 있어 이상점(outlier)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최대값을 100회로 정하여 100회를 초과한 응답에 대해서는 최대값으로 대체하였다. 경비행경험 횟수에 대한 문항 중 ‘담배피우기’에 대한 문항이 ‘지난 1년 간 본인이 한 횟수’와 ‘지난 1년간 하루에 본인이 한 횟수’로 측정이 되어 이 두 문항을 하나의 변인으로 구성하기

경비행은 청소년의 지위상 사회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으로 ‘담배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이 포함된다. 중비행은 보다 심각한 유형의 비행으로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 ‘협박하기’, ‘남을 심하게 조롱하기’,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훔치기’,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뺏기’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 다. 비행경력지속유형

이 연구에서는 비행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비행경력지속유형을 구분하고자 한다. 비행유형에 따른 비행경력지속유형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먼저, 비행경력지속집단은 ‘고정적인 비행경력(fixed delinquency career)’과 ‘유동적인 비행경력(unfixed delinquency career)’으로 구분된다. 고정적인 비행경력지속은 동일한 비행을 지속하는 경우이며 유동적인 비행경력지속은 과거에 저질렀던 비행유형과는 다른 비행유형을 지속하는 경우이다. 이는 비행의 죄질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된다. 고정적인 비행경력지속은 비행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낮은 수준의 비행경력’과 ‘높은 수준의 비행경력’으로 구분한다. 낮은 수준의 비행경력지속은 술마시기, 담배피우기, 무단결석, 가출 등의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경비행지속하는 경우이다. 높은 수준의 비행경력지속은 성인이 저질러도 문제가 되는 범위반행위로 남을 때리거나 협박하기,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등의 비행을 지속하는 경우이다. 한편, 유동적인 비행경력지속은 중비행을 저지르다가 중단하고 경비행만을 저지르는 ‘약화된 비행경력’과 경비행지속하다가 중비행으로 변화하는 ‘강화된 비행경력’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는 사소한 비행을 시작으로 심각한 비행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동적인 비행경력지속유형 중에서 ‘강화된 비행경력’에 주목하여 살펴 보겠다.

---

위해 ‘지난 1년간 하루에 본인이 한 횟수’에 응답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난 1년 간 본인이 한 횟수’의 최대값인 100번으로 대체하였다. 모든 비행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0’회로 포함시킨다.

<표 1> 비행경력지속 유형

| 유형        |             | 과정          |
|-----------|-------------|-------------|
| 고정적인 비행경력 | 낮은 수준의 비행경력 | ① 경비행 → 경비행 |
|           | 높은 수준의 비행경력 | ② 중비행 → 중비행 |
| 유동적인 비행경력 | 약화된 비행경력    | ③ 중비행 → 경비행 |
|           | 강화된 비행경력    | ④ 경비행 → 중비행 |

3. 분석방법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자료를 중심으로 Amos 통계프로그램에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분석을 통해 강화된 비행경력에서 나타난 부모의 폭력적 훈육의 효과가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밝힌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다음의 <표 2>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청소년이 1,594명이며 남자청소년이 1,594명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50%로 동일하다. 두 번째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이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정 내 수입,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등으로 알 수 있다. 조사 대상 청소년의 가정 내 수입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110명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503명으로 16.9%,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806명으로 27.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의 경우 785명으로 26.4%, 400만원 이상의 경우는 766명으로 25.8%로 나타났다<sup>7)</sup>.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자 중 약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lt;표 2&gt; 조상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 측정항목       |                         | 빈 도    | 백분율   |       |
|------------|-------------------------|--------|-------|-------|
| 성 별        | 남자청소년                   | 1,594  | 50.0  |       |
|            | 여자청소년                   | 1,594  | 50.0  |       |
|            | 소 계                     | 3,188  | 100.0 |       |
| 가정 내<br>수입 | 100만원 미만                | 110    | 3.7   |       |
|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503    | 16.9  |       |
|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806    | 27.1  |       |
|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785    | 26.4  |       |
|            | 400만원 이상                | 766    | 25.8  |       |
|            | 소 계                     | 2,970  | 100.0 |       |
|            | 가정의<br>사 회 경 제<br>적 지 위 | 아버지학력  | 중 졸   | 373   |
| 고 졸        |                         |        | 1,386 | 44.4  |
| 전문대졸       |                         |        | 216   | 6.9   |
| 대학교졸       |                         |        | 948   | 30.3  |
| 대학원 이상     |                         |        | 201   | 6.4   |
| 소 계        |                         |        | 3,124 | 100.0 |
| 어머니학력      |                         | 중 졸    | 537   | 17.3  |
|            |                         | 고 졸    | 1,825 | 58.8  |
|            |                         | 전문대졸   | 153   | 4.9   |
|            |                         | 대학교졸   | 537   | 17.3  |
|            |                         | 대학원 이상 | 51    | 1.6   |
|            |                         | 소 계    | 3,103 | 100.0 |
| 결손여부       | 결손아니다                   | 2,931  | 94.4  |       |
|            | 결손이다                    | 175    | 5.6   |       |
|            | 소 계                     | 3,106  | 100.0 |       |

한편, 아버지 학력의 경우, 고졸인 경우가 1,386명(4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의 경우가 948명으로 30.3%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의 경우에도 역시 고졸인 경우가 1,825명(58.8%)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인 경우 537명으로 전체의 17.3%이다<sup>8)</sup>. 마지막으로 결

7) 수입은 전화로 이루어진 부모조사에서 “택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의 문항으로 월평균 금액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전화조사원이 기입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응답내용을 기준으로 5점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즉, 100만원 미만이면 ‘1’,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면 ‘2’,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면 ‘3’,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면 ‘4’, 400만원 이상이면 ‘5’로 재부호화 하였다.

8) 아버지/어머니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이하면 ‘1’, 고등학교 졸업이면 ‘2’, 전문대 졸업이면 ‘3’, 대학교 졸업이면 ‘4’, 대학원 이상이면 ‘5’로 재부호화 하였다.

손가정여부에 대한 것으로 양친과 모두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94.4%로 나타났으며 결손가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175명(5.6%)이다<sup>9)</sup>.

## 2. 강화된 비행경력과 부모의 폭력적 훈육간 관계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sup>10)</sup>

강화된 비행경력과 부모의 폭력적 훈육요인과의 측정모델에서 비행 관측변인의 모수추정치의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 강화된 비행경력과 부모의 폭력적 훈육 측정모델 비행 관측변인의 모수추정치

| 구 분     | 경비행               |                   |                   |                   | 구 분   | 중비행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 남자                 | 여자                 |
| 흡 연     | 1.00<br>(.816)    | 1.00<br>(.631)    | 1.00<br>(.862)    | 1.00<br>(.742)    | 때 리 기 | 1.00<br>(.637)     | 1.00<br>(.608)     |
| 음 주     | .651***<br>(.530) | .933***<br>(.454) | .664***<br>(.551) | .872***<br>(.486) | 패 싸 움 | .409***<br>(.375)  | .554***<br>(.423)  |
| 무 단 결 석 | .083***<br>(.145) | .396***<br>(.491) | .205***<br>(.405) | .330***<br>(.443) | 조롱하기  | 1.485***<br>(.534) | 1.096***<br>(.385) |
| 가 출     | .043***<br>(.130) | .211***<br>(.461) | .048***<br>(.185) | .188***<br>(.500) | 협박하기  | .983***<br>(.670)  | .706***<br>(.598)  |
|         |                   |                   |                   |                   | 홈 치 기 | .424***<br>(.328)  | .316***<br>(.173)  |
|         |                   |                   |                   |                   | 뺨 치 기 | .301***<br>(.285)  | .848***<br>(.658)  |

\*\*\*  $p < .001$  괄호안 수치는 표준화 계수임.

1,2차년도의 경비행의 경우 담배피우기에 대한 모수를 1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세 변인의 모수를 추정하였고 3차년도 중비행의 경우에는 남을 심

9) 결손가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부모조사문항으로 가족구성 형태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여 양친이 모두 있는 경우를 결손이 아닌 경우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결손가정 '2'로 재분류하였다.

10) 비행변인을 사용함에 있어서 비행분포에 따라 재부호화한 후 사용하였다.

하게 때리기에 대한 모수를 1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다섯 변인의 모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1,2차년도의 경비행의 관측변인과 3차년도의 중비행의 관측변인은 남·여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4> 강화된 비행경력과 부모의 폭력적 훈육 측정모델 비행 관측변인의 다중상관자승

| 경비행  |      |      |      |      | 구 분   | 중비행  |      |
|------|------|------|------|------|-------|------|------|
| 구 분  | 1차년도 |      | 2차년도 |      |       | 3차년도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남자   | 여자   |
| 흡 연  | .667 | .398 | .743 | .551 | 때 리 기 | .406 | .369 |
| 음 주  | .281 | .206 | .304 | .236 | 패 싸 움 | .141 | .179 |
| 무단결석 | .021 | .241 | .164 | .197 | 조롱하기  | .285 | .149 |
| 가 출  | .017 | .213 | .034 | .250 | 협박하기  | .449 | .357 |
|      |      |      |      |      | 흠 치 기 | .107 | .030 |
|      |      |      |      |      | 뺨 기   | .081 | .434 |

<표 4>는 강화된 비행경력과 부모의 폭력적 훈육 측정모델에서 비행 관측변인의 다중상관자승<sup>11)</sup>의 값을 나타낸 것이다. 비행 관측변수의 다중상관자승의 값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비행과 상황적 요인에 대한 관측변수들의 질적 차원에서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강화된 비행경력과 부모의 폭력적 훈육요인과의 측정모델에서 부모의 폭력적 훈육변인의 모수추정치와 결과는 <표 5>와 같다. 부모의 폭력적 훈육에 있어서 ‘부모로부터의 심한 욕설을 듣는다’의 문항을 모수 1로 고정시키고 ‘부모로부터 심하게 맞는다’의 문항의 모수를 추정하여 살펴본 결과 1,2,3차년도에서 남·여 모두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의 폭력적 훈육 관측변인의 다중상관자승의 값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여 모두 .6점 이상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난다(<표 6> 참고).

11)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R^2$ )회귀분석에서  $R^2$ 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측정모델에서의  $R^2$ 은 잠재변인이 관측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어 관측변수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이용된다. 구조모델에서는  $R^2$ 는 종속변인이 독립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낸다(노성호, 2006b).

&lt;표 5&gt; 강화된 비행경력과 부모의 폭력적 훈육 측정모델 부모의 폭력적 훈육 관측변인의 모수추정치

| 구 분            | 부모의 폭력적 훈육          |                     |                    |                     |                    |                     |
|----------------|---------------------|---------------------|--------------------|---------------------|--------------------|---------------------|
|                |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                | 남 자                 | 여 자                 | 남 자                | 여 자                 | 남 자                | 여 자                 |
| 부모로부터심<br>한욕설  | 1.00<br>(.869)      | 1.00<br>(.832)      | 1.00<br>(.823)     | 1.00<br>(.794)      | 1.00<br>(.858)     | 1.00<br>(.825)      |
| 부모로부터심<br>하게맞음 | 1.021 ***<br>(.850) | 1.080 ***<br>(.825) | .898 ***<br>(.780) | 1.048 ***<br>(.811) | .961 ***<br>(.865) | 1.033 ***<br>(.858) |

\*\*\*  $p < .001$  괄호안 수치는 표준화 계수임

&lt;표 6&gt; 강화된 비행경력과 부모의 폭력적 훈육 측정모델 부모의 폭력적 훈육 관측변인의 다중상관지수

| 구 분  | 부모의 폭력적 훈육     |      |                 |      |
|------|----------------|------|-----------------|------|
|      | 부모로부터 심한 욕설 경험 |      | 부모로부터 심하게 맞은 경험 |      |
|      | 남 자            | 여 자  | 남 자             | 여 자  |
| 1차년도 | .755           | .692 | .723            | .681 |
| 2차년도 | .678           | .631 | .609            | .658 |
| 3차년도 | .737           | .680 | .749            | .735 |

다음의 <표 7>는 강화된 비행경력과 부모의 폭력적 훈육과의 구조모델에서 잠재변인 간 모수추정치와 구조모델의 적합도<sup>12)</sup>를 나타낸 것이다.

- 12)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표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Measures)와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Measures),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Measures)로 구분된다.  $\chi^2$  통계량은 모델의 전반적인 부합도를 평가하는 절대적합지수로 값이 작고 확률값이 크면 모델이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표본크기가 크게 되면 제안모델을 기각시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RMSEA(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적합지수이다. 이 값이 .05~.08의 범위를 보일 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10이하면 자료를 잘 적합하고 .05이하면 매우 잘 적합 시키고 .01이하면 가장 좋은 적합도라 한다(노성호, 2007). 증분적합지수는 CFI(비교적합지수)가 있다. 이 값은 0~1값을 가지며 .9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본다. NFI(표준적합지수)는 기초모델에 비해 제안모델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를 나타낸 것으로 0~1까지의 범위를 갖고

먼저, 이 모델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 (자유도)값이 2201.008(322)로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며 RMSEA 값이 .041, CFI 값이 .945, NFI값은 .951로 나타났다. 즉, RMSEA 값이 .05이하의 아주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으며 CFI값과 NFI값이 .9점 이상으로 역시 적합도가 높은 편이다.

<표 7> 강화된 비행경력과 부모의 폭력적 훈육 구조모델 잠재변인 간 모수추정치

| 구 분                      | 남 자               |           | 여 자        |           | 성별 차이<br>계수 <sup>13)</sup> |
|--------------------------|-------------------|-----------|------------|-----------|----------------------------|
|                          | 비표준화<br>계수        | 표준화<br>계수 | 비표준화<br>계수 | 표준화<br>계수 |                            |
| 1차 경비행<br>→ 2차 경비행       | .689***           | .476      | .782***    | .587      | .971                       |
| 1차 폭력적 훈육<br>→ 2차 경비행    | .042              | .053      | .116***    | .199      | 2.459*                     |
| 1차 폭력적 훈육<br>→ 2차 폭력적 훈육 | .382***           | .476      | .564***    | .673      | 4.712***                   |
| 1차 경비행<br>→ 2차 폭력적 훈육    | .057              | .039      | .212***    | .111      | 2.063*                     |
| 2차 경비행<br>→ 3차 중비행       | .012              | .045      | .012       | .055      | .038                       |
| 2차 경비행<br>→ 3차 폭력적 훈육    | .022              | .019      | .038       | .024      | .281                       |
| 2차 폭력적 훈육<br>→ 3차 폭력적 훈육 | .551***           | .499      | .691***    | .629      | 2.601**                    |
| 2차 폭력적 훈육<br>→ 3차 중비행    | .021*             | .084      | .026***    | .167      | .405                       |
| $\chi^2$ (자유도)           | 2201.008*** (322) |           |            |           |                            |
| RMSEA                    | .041              |           |            |           |                            |
| CFI                      | .945              |           |            |           |                            |
| NFI                      | .951              |           |            |           |                            |

\*  $p < .05$  \*\*  $p < .01$  \*\*\*  $p < .001$

일반적으로 .9 이상이면 수용할만하다고 본다(배병렬, 2006).

- 13) 성별집단의 경로계수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남녀 집단별 변수사이의 값을 통해 절대값 1.96보다 크면 성별로 경로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의 경로계수의 차이는 표본오차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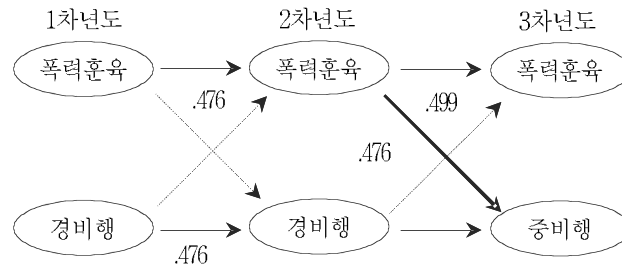
다음으로 구조모델에서 잠재변인 간 모수추정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 첫 번째로 부모의 폭력적 훈육경험에 대한 비행의 영향력이다. 1차년도와 2차년도의 부모의 폭력적 훈육간의 관계에서 여자청소년만이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표준화계수: .111). 즉, 여자청소년의 경우 1차년도에 경비행을 저지를수록 이후 부모로부터의 폭력적 훈육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지만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경비행을 저지르더라도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가정 내에서 자녀의 성별에 따라 비행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부모의 제재와 처벌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비행자가 남자아이일 경우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반면, 여자청소년은 가정 내에서 여성다운 태도와 행위를 위한 엄격한 통제장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아이의 비행은 청소년으로서 금지된 행위일 뿐 아니라 여자아이로서 지켜야 할 태도와 행위를 어긴 것으로 이중적 비난과 함께 부모의 과도한 처벌이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비행에 대한 부모의 폭력적 훈육의 영향력이다. 1차년도의 폭력적 훈육이 2차년도의 경비행에 주는 영향력은 여자청소년만이 나타났다. 표준화계수를 통해 보면 .199로 부모로부터의 폭력적 훈육을 많이 경험할수록 이후 경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자청소년의 경우 비행에 있어서 가족 내 경험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비행을 저지른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과는 달리 부모의 폭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부모와의 불안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긴장을 유발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술이나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2차년도의 부모의 폭력적 훈육과 3차년도의 중비행간의 관계는 남녀 모두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며 부모의 폭력적 훈육을 많이 경험할수록 중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적절한 훈육방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폭력성 비행을 포함하고 있는 중비행에 있어서 부모의 폭력은 학습의 효과로 훈육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부모의 폭력을 자녀가 그대로 학습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 폭력적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Patterson, 1982). 성별에 따라 표준화 계수를 통해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이 .084, 여자청소년이 .167로 상대적으로 여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폭력적 훈육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세 번째,  $t$ 년도 비행과  $t+1$ 년도 비행간의 관계이다. 1차년도 경비행과 2차년도 경비행간의 표준화 계수가 성별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여자청소년이 .587로 남자청소년의 .476보다 높은 것으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1차년도의 경비행을 많이 저지를수록 2차년도에 경비행을 또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네 번째,  $t$ 년도 부모로부터의 폭력적 훈육경험과  $t+1$ 년도 부모로부터의 폭력적 훈육경험간 관계이다. 표준화계수를 통해 살펴보면 1차년도 부모의 폭력적 훈육경험과 2차년도 부모의 폭력적 훈육경험의 경우 남자청소년은 .476, 여자청소년은 .673으로 나타났다. 또한 2차년도 부모의 폭력적 훈육과 3차년도 부모의 폭력적 훈육의 경우 남자청소년은 .499, 여자청소년은 .629이다. 성별차이 계수는 각 4.712, 2.601로 남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폭력적 훈육이 지속될 가능성이 남자청소년보다 더 크게 나타나 계속되는 가정 내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그림 2>과 <그림 3>은 앞서 살펴본 <표 7>에 나타난 관계를 중심으로 발생적 시간 순서대로 표준화계수를 통해 살펴본 것이다. 즉, 경비행을 저지른 후 부모의 폭력적 훈육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중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로를 보다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1차년도 경비행을 많이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2차년도 부모의 폭력적 훈육경험을 경험할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자청소년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경비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폭력적 훈육을 경험하지는 않는 것으로 경비행의 결과로 부모의 폭력적 훈육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반면, 중비행을 저지름에 있어서 부모의 폭력적 훈육의 효과는 나타나 중비행을 저지르도록 하는 원인으로 부모의 폭력적 훈육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부모로부터의 폭언과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남자청소년은 남을 심하게 때리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의 심각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다. 이처럼 남자청소년의 경우 강화된 비행경력 지속과정에서 부모의 폭력적 훈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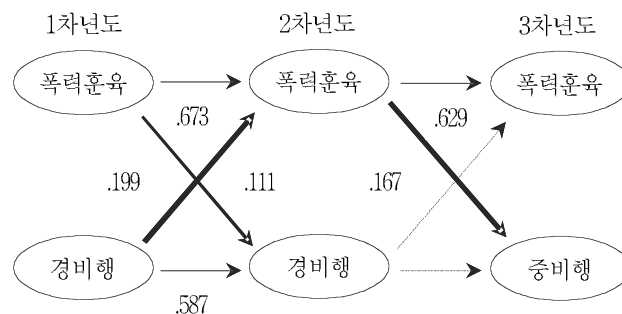


<그림 2> 폭력적 훈육과 강화된 비행경력 지속경로(남자)

한편, 여자청소년의 경우 <그림 3>에서 나타나듯이 경비행에서 중비행으로의 강화된 비행경력에 있어서 부모의 폭력적 훈육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과는 달리 음주나 흡연, 무단 결석으로 인하여 부모의 지나친 처벌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험으로 인하여 중비행경력으로의 지속경로를 가지게 된다. 특히, 여자청소년의 경우 중비행경력에 대한 과거 경비행경력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경비행경력이 부모로부터의 폭력적 훈육경험을 매개로 하여 이후 중비행경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강화된 비행경력 지속경로에서 폭력적 훈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경비행을 저지른 여자아이에 대한 부모의 폭력적 훈육방식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욱 악화시켜 보다 심각한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정 내에서 여자아이에 대해 더 엄격한 규칙들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에 비해 사소한 비행일지라도 심각한 행동으로 간주되어 부모에 의해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Bursik et al., 1985). 또한 여자청소년의 경우 비행으로 인한 부모의 폭언과 신체적 폭력이 이후의 비행에 더 크게 영향을 주는 이유는 여성들은 남성과는 달리 관계적 차원의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사회화되어 여자청소년의 경우 가족 구성원간 관계의 단절과 분리의 경험, 특히 부모로부터의 폭언과 신체적 폭력의 경험은 비행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폭력적 훈

육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비행을 저지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올바른 훈육 방식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자청소년의 경우 강화된 비행경력과 부모의 폭력적 훈육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행을 저지른 여자아이에 대한 부모의 신중한 대처방식이 요구된다.



<그림 3> 폭력적 훈육과 강화된 비행경력 지속경로(여자)

다음의 <표 8>는 부모의 폭력적 훈육과 강화된 비행경력 구조모델의 잠재변인에 대한 다중상관자승을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2차년도의 부모의 폭력적 훈육은 전년도의 부모의 폭력적 훈육과 경비행 경험으로 인해 설명되는 것으로 남자청소년은 23.1%, 여자청소년은 48.3%의 설명력이 보이고 있고 2차년도의 경비행은 전년도 경비행과 부모의 폭력적 훈육으로 인해 설명되어 남자청소년은 23.3%, 여자청소년은 41.2%의 설명력을 보인다. 그리고 3차년도의 부모의 폭력적 훈육은 2차년도의 경비행과 폭력적 훈육으로 인하여 남자청소년은 25.1%, 여자청소년은 40.4%의 설명력을 보이며 3차년도의 중비행은 전년도 경비행과 부모의 폭력적 훈육경험으로 인하여 설명되는 것으로 남자청소년은 0.9%, 여자청소년은 3.5%의 설명력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여자청소년의 다중상관자승의 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lt;표 8&gt; 강화된 비행경력과 부모의 폭력적 훈육 구조모델 잠재변인의 다중 상관자승

| 구<br>분 | 잠재변인           |      |          |      |                |      |          |      |
|--------|----------------|------|----------|------|----------------|------|----------|------|
|        | 2차년도<br>폭력적 훈육 |      | 2차년도 경비행 |      | 3차년도<br>폭력적 훈육 |      | 3차년도 중비행 |      |
|        | 남 자            | 여 자  | 남 자      | 여 자  | 남 자            | 여 자  | 남 자      | 여 자  |
| $R^2$  | .231           | .483 | .233     | .412 | .251           | .404 | .009     | .035 |

## V. 결 론

본 연구는 강화된 비행경력과 부모의 폭력적 훈육간의 인과적 모델을 제시하여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경비행에 있어서 부모의 폭력적 훈육의 효과이다. 여자청소년만이 부모의 폭력적 훈육을 경험할수록 경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다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의 폭력으로 그 관계가 끊어져 그로 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Anderson, 1977; Singer & Levine, 1988; 김준호·김은경, 1995). 한편, 중비행에 있어서 부모의 폭력적 훈육의 효과는 남녀 모두 나타나 부모로부터의 심한 언어적 폭력이나 신체적 폭력을 경험할수록 중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부모의 올바른 훈육방식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강화된 비행경력지속과정에서 나타난 부모의 폭력적 훈육의 효과이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과는 달리 경비행경력으로 인한 부모의 폭력적 경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비행을 저지른 여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지나친 폭력적 훈육을 경험할수록 보다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게 되어 강화된 비행경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 내에서 여자아이에 대한 엄격한 규율이 존재하

고 비행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서로 다른 의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며 여자청소년의 경우 타자와 밀접하고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사회화되고 가족 내 환경이 중요한 준거집단으로 가정 내 생활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즉, 여자청소년의 비행은 청소년으로서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규범을 어긴 것으로 이중적 비난이 가해지면서 남자청소년과 동일한 유형의 비행이라 할지라도 보다 심각한 행동으로 간주되어 부모로부터 지나친 처벌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여자청소년은 전통적 성역할 사회화로 인하여 남자청소년에 비해 관계적 차원의 요인 특히 가족 내 부모와의 관계를 보다 중요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의 폭언과 신체적 폭력경험의 영향력은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강화된 비행경력 지속경로에서 부모에 의한 폭력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강화된 비행경력 지속과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조사시기 이전의 비행경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부모의 폭력적 훈육경험 또한 형성 시점이 확실하지 않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부모의 폭력적 훈육이 비행에 어떠한 과정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결과는 오늘날 심각하게 대두되는 경력 비행청소년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즉, 비행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비행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이나 꾸짖음, 비난이 아니라 적극적인 이해의 자세로 비행청소년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자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에 비해 부모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물리적 폭력이 비행경력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집중적 방안이 필요하다. 즉, 남자아이라는 이유로 자녀의 비행을 합리화시켜 방관해서는 안 되며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확대 주목하여 무조건적인 통제와 지나친 제재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내 문헌(단행본)]

- 김은경 · 이동원, 2003, 『일탈 및 범죄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대책』,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김준호 · 김은경, 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 노성호 · 이성식 · 광대경 · 이동원 · 박철현, 2006,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 김준호 · 이순래, 1995,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노성호, 1993, 『한국의 청소년 비행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배병렬, 2006, 『LISREL 구조방정식모델』, 도서출판 청람.
- 법무연수원, 2006, 『범죄백서』.
- 이춘화, 윤옥경, 2003,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수형, 2008, 『비행경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반응의 성별 차이』,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청소년비행의 상습화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국내 문헌(연구논문)]

- 노성호, 2006a, “중단적 자료를 이용한 청소년 비행화 모델의 검증”, 『사회과학논총』 22:57~83.
- 노성호, 2007, “비행의 발전에 대한 대립적인 범죄이론의 비교검증”,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발표집』, 363~386.
- 이성식, 2003, “가정과 청소년비행: 주요이론들의 매개과정을 통한 검증”, 『형사정책연구』 14: 175~207.
- 이성식, 2007,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의 청소년비행에의 영향: 청소년

년패널자료의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8:159~181.

이순래·박철현, 1999, “범죄현상에 대한 새로운 분석틀” 『한국공안행정학회』 제 9집.

이순래, 2005, “지속적 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Moffitt의 이질적 비행발생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6: 269~300.

이순래, 2007, “일탈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 『인간발달학회 추계 학술심포지엄 발표집』, 83~113.

정익중, 2004, “청소년비행의 성별차이” 『제 1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최수형·김준호, 2005, “여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위한 연구” 『2005년 후기사회학대회 발표집』.

최영신, 2006, “여자 비행청소년의 범죄피해 경험과 처우” 『교정연구』 30: 61~88.

[외국문헌]

Artz, S., 1998, Sex, power, and the violent school girl, Toronto: Trifolium Books.

Bernburg, J. G. and M. D. Krohn, 2003, “Labeling, Life Chances, and Adult crim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official intervention in adolescence on crime in early adulthood.” Criminology 41: 1287~1318.

Bursik, R. J. Jr., D. Merton, G. and Schwartz, 1985, “Appropriate age-related behavior for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dult perception.” Youth and Society, 17:115~130.

Chesney-Lind, M., 2004a, Girls Women, and Crime : Selected Readings, SAGE

Chesney-Lind, M. and Randall G. Shelden, 2004b, Girls, Delinquency, and Juvenile Justice; third edition, Wadsworth.

Heimer, K. and C. Kruttschnitt, 2006, Gender and Crime: Patterns of Victimization and offending New York University Press.

Moe, Angela M. 2004, “Blurring the Boundaries: women’s Criminality in

- the context of Abuse.” *Women’s Studies Quarterly* 32: 116~138.
- Nagin, Daniel S. and R. Paternoster, 1991, “On the relationship of past to future participation in delinquency.” *Criminology* 29(3).
- O’Connell, Daniel J. 2003, “Inverting latent trait and life course theories as predictors of recidivism among offender sampl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1: 455~467.
- Patterson, G.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A Social Learning Approach*. Eugene, OR: Castalia.
- Sampson, Robert J. and J. H. Laub, 2004 “A life-course theory of cumulative disadvantage and the stability of delinquency.” In T. P. Thornberry *Development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pp.133~161.
- Sansbury, L. L. and Wahler, R. G., 1992, “Pathways to maladaptive parenting with mothers and their conduct disordered children,” *Behavior Modification* 16: 574~592.
- Simons, R. L., C. Johnson, R. D. Conger, and G. Elder, Jr., 1998, “A test of latent trait vs life-course perspective on stability of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Criminology* 36:217~243.
- Singer, S. I. and M. Levine, 1988, “Power-Control Theory, Gender and Delinquency: A Partial replication with Additional Evidence on the Effects of Peers.” *Criminology* 26: 627~467.
- Stouthamer-Loeber, M., E. and Wei, R. Loeber, A. S. Masten, 2004, “Desistance from persistent serious delinquency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 897~918.
- Thornberry, Terence P., 1987, “Toward an interactional theory of delinquency.” *Criminology* 25: 863~891.
- Widom, C. S., 1989, “Child Abuse, Neglect, and Violent Criminal Behavior.” *Criminology* 27: 251~271.
- Wolfgang, M. E., T. P. Thornberry, and R. M. Figlio, 1987, *From Boy to man, from Delinquency to crime*,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 Sex Difference in the Relation of Parental Violent Punishment and Delinquent Career

Choi, Soo-Hyeong\*

The Study intends to test a sex difference in the relation of parental violent punishment and strengthen delinquent career.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drawn from Korea Youth Panel Survey conducted in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e conclude that parental violent punishmen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delinquent career, especially girls who had minor delinquent career are affected more strongly than boys. Namely, girls who had minor delinquent career experience parental violent punishment and minor delinquent girls who experience parental violent punishment commit a serious delinquency. This result is because there is strict rules about girl in family and relations with parent is more important cause among girls as compared with boys. Parental violent punishment is inappropriate reaction strategy even though parents punish severely to stop child from committing delinquency.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important implication that prevention programs for career delinquent should have not excessive and one-sided punishment but positive attitude and understanding. The Findings also suggests that future research should attempt to diversify a relation of parental violent punishment and delinquent career.

주제어 : 청소년비행, 비행경력, 부모의 폭력적 훈육, 성별 차이  
Keywords : delinquency, delinquent career, parental violent punishment, sex difference

---

\* Korea University, Ph. D. in Sociology.